전남 농수산식품 수출 39% 증가… 김·음료 성장 견인

1월 수출액 7641만 달러…중국·유럽 시장 확대
도, 해외 판촉·수출기업 맞춤 지원 등 강화키로

전남 농수산식품 수출이 새해 들어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며 글로벌 시장 확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전남도는 올해 1월 농수산물 수출액이 7641만달러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 5495만달러보다 39.0%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품목별로는 수산물이 전체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 수산물 수출액은 4653만달러로 전년 대비 31.4% 늘며 전체 농수산물 수출의 60.9%를 차지했다.

특히 김 수출이 3573만달러로 28.9% 증가해 전체 농수산물 수출의 46.8%를 차지하며 최대 수출 품목으로 자리했다. 전남도는 한류 콘텐츠 확산과 K-푸드 인지도 상승에 따른 해외 수요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농산가공품 수출도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농산가공품 수출은 1954만달러로 101.8% 증가했고, 이 가운데 음료 수출은 819만달러로 124.5% 늘었다. 이 밖에도 분유(64.7%), 미역(94.9%), 배(108.4%), 면류(258.6%), 버섯류(842.8%) 등 주요 품목이 증가세를 나타냈다.

국가별로는 중국 수출이 2360만달러로 140.0% 증가해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일본은 1634만달러(24.6%), 미국은 1449만달러(16.4%), 러시아는 397만달러(29.1%)로 각각 늘었다.

유럽 시장에서도 김을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되며 네덜란드(383.9%), 독일(382.3%), 스페인(3193.7%) 등에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전남도는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올해 총 107억원을 투입해 해외 판촉 강화와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수출 특화품목 직불금 지원을 비롯해 수출 컨테이너 내륙 운임, 수출 기자재 지원,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수출상담회 개최 등을 추진한다.

또 전남 AI무역센터를 활용해 수출 상담부터 계약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아마존과 위(Weee) 등 해외 온라인몰 입점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13개국 29개소 해외 상설판매장을 기반으로 농수산식품 판로를 넓히고 'K-전남김' 등 전략 품목의 세계 시장 경쟁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한류 확산과 K-푸드 열풍으로 김과 음료 등 고부가가치 가공식품 수출이 증가했다"며 "기존 주력시장뿐 아니라 유럽 등 신시장 개척을 통해 수출 성장세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광주 아파트 매매가격 2개월 연속 하락
0.15% ↓… 전남 4개월 연속 상승세 이어가

지난달 광주 아파트 매매가격은 2개월 연속 하락한 반면 전남은 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8일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 아파트 매매가격은 0.15% 하락했다. 광주는 지난 1월(-0.04%)에 이어 2개월 연속 하락 중이다.

전남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달 0.18% 상승했다. 지난해 11월(0.03%), 12월(0.07%)에 이어 지난 1월(0.01%)까지 상승하며 4개월 연속 상승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59% 상승했다. 전국에서 광주(-0.15%)와 충남(-0.02%) 두 곳만 매매가격이 하락했다. 서울은 0.77% 오르고 수도권과 경기·인천이 각각 0.67%, 0.64%, 0.12% 상승했다. 지방은 0.27%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서울(0.77%), 경기(0.64%), 부산(0.48%) 등 순이었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26% 올라 전월(0.34%) 대비 상승폭이 둔화됐다. 광주는 0.08%, 전남은 0.01%가 각각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경기(0.34%), 서울(0.29%), 인천(0.22%), 제주(0.20%) 등 순으로 올랐다. 경북(-0.02%)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상승했다.

엄재용 기자 djawodyd0316@

벼 육묘·신기술 전남광주협의회 정기총회
육묘 신기술 확산·공동육묘장 운영 협력 강화

농협 전남본부는 최근 본부 4층 중회의실에서 '벼 육묘·신기술 전남광주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지역 농협 조합장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사업결산 심의 △2026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심의 △신규회원 가입 보고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또 벼 육묘 분야 신기술 도입과 공동육묘장 운영, 드문모심기 등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농업현장에서 직면한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은 "전남농협은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벼 육묘 신기술 도입을 통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동심협력의 자세로 육묘장 운영과 드문모심기 등 신기술 농법 확산을 위해 중앙회 자금 지원 등 현장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협 전남본부는 2025년 기준 농촌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지역 내 66개 농협이 벼와 원예작물을 중심으로 공동육묘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

6일 대전 신협중앙연수원 다목적홀에서 제34대 고영철 신임 회장 취임식이 열렸다.

"조합 중심 경영·현장형 리더십 강화"
신협중앙회, 고영철 제34대 회장 취임

신협중앙회는 지난 6일 대전 신협중앙연수원 다목적홀에서 제34대 고영철 신임 회장 취임식과 기존 임원 이임식을 열고 새로운 4년 임기의 출발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박범계(대전 서구을)·강준현(세종을)·장철민(대전 동구)·장종태(대전 서구갑)·황정아(대전 유성구을)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국 신협 이사장과 임직원들이 참석해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임기를 마친 기존 임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다.

고영철 회장은 지난 1월 7일 실시된 신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당선됐으며, 임기는 2026년 3월 1일부터 2030년 2월 28일까지 4년이다.

고 회장은 취임사에서 "중앙회는 조합을 위해 존재한다는 원칙 아래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조합은 반드시 회생시키고, 농촌·소형조합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체율 등 건전성 지표를 개선하고 유동성 안전망을 강화하겠다"며 "AI·디지털·핀테크 혁신을 통해 새로운 수익 기반을 마련하고 조합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회장은 또 "중앙회 사무실에만 머무르지 않는 '현장형 회장'이 되겠다"며 "전국 조합을 직접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실행으로 약속을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협중앙회는 이날 지역별 신임 이사 취임 사실도 함께 발표했다. 서울 방계혁(대방신협), 부산 여태현(송도신협), 울산·경남 유운하(울산행복신협), 인천 박태선(인천항신협), 경기 전찬구(이천신협), 대구 최영훈(대구대서신협), 경북 하상곤(경북오천신협), 대전 임성일(대전온누리신협), 충남 윤여경(화지산신협), 광주 이옥규(중흥신협), 전남 문경환(강진신협), 충북 노원호(청주남부신협), 전북 양춘제(전주파티마신협), 강원 이도식(원주밝음신협), 제주 강정신(한라신협) 이사장이 각각 이사로 취임했다. 전문이사로는 김학산 전 이사장이 임기를 시작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5@

자동차 덜 타면 최대 10만원
시, '탄소중립포인트제' 모집

광주시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주행거리 감축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이는 참여형 탄소중립 정책을 확대 추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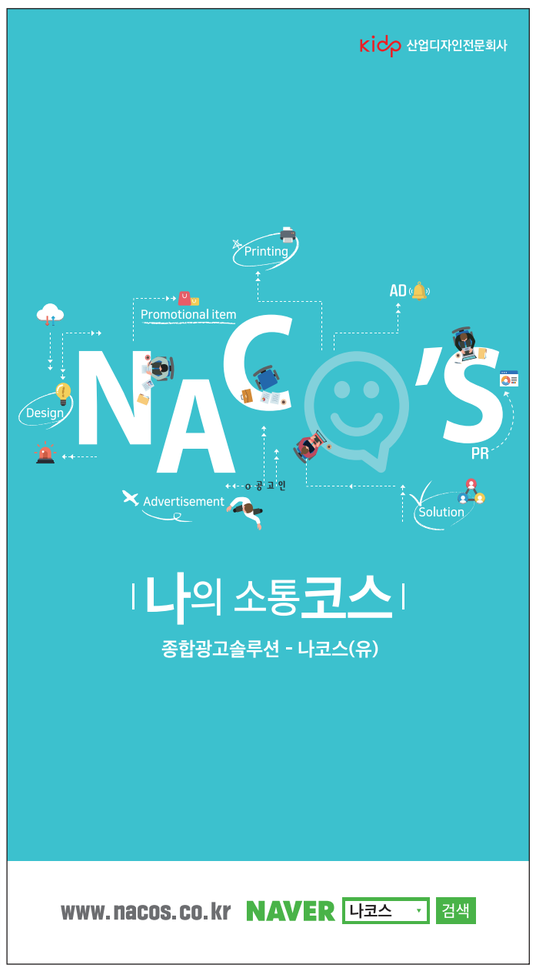
광주시는 자동차 주행거리를 줄이면 최대 1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차량을 오는 9일부터 19일까지 선착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올해 모집 규모는 총 5378대로, 지난해 3143대보다 2235대(71.1%) 늘어난 수준이다. 자동차 부문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높이기 위해 참여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는 것이 광주시의 설명이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주행거리를 자발적으로 감축하면 감축거리 또는 감축률에 따라 현금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전국 단위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다.

참여 대상은 광주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 자동차다. 다만 사업용 차량과 전기차·수소차·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센티브는 과거 누적 일평균 주행거리와 참여 기간(가입일~2026년 10월 31일) 동안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산정된다.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모집 기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차량 전면 사진과 계기판 사진을 촬영해 문자로 안내된 링크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